

기독교적 대안학교의 과제와 방향

홍 순 명(충남 홍성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장)

학교 교육의 방향 전환

수능 철이 되었는데 고3 학생들이 교과서를 찢어 창 밖으로 던진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거리를 쏘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졸업 때까지 거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지긋지긋한 10년 공부 가 이제 끝났다는 해방감에 젖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공부는 자기 특성에 맞추어 진리를 찾고 남에 대한 봉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생 하는 것이고 공부의 과정에는 단락이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는 입시를 공부의 목적으로 가르쳐온 한국 교육의 단면이 잘 나타나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에는 머리에 물들이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교 이래 교복이나 두발을 자율화시켜왔습니다. 학생의 개성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색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의 실현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개성의 포기라고 생각되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염색이

* 이 글은 2000년 11월 18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독교대안학교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한 것이다.

서양 사람을 흉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잊은 자 긍심 없는 태도와 같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염색이 좋으나 나쁘냐 하는 단답(單答)보다 왜 해야하고 안 해야 하나, 개성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의 철학이 교육현장에서 평소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간 획일적인 복장 단속이 일으킨 반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교보에 들렀더니 일본의 종합교양지 문예춘추(文藝春秋) 11월호에 학생이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 사회인사들이 쓴 글을 모은 특집 기사가 나왔더군요. 재난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인사들의 글 요지는 불교에서는 살생이 금지되었으니까, 또는 죽이면 죽인 사람도 죽으니까, 그들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서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이도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다뤄야 할 사회적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런 문턱에 들어선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확실히 교육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아노미(anomie)현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의 도덕적, 정신적인 공통의 가치관 또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질서를 주는 공통의 판단기준을 상실한 사회는 개개인의 멋대로의 판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규칙 없는 경기, 규칙 없는 도로 교통의 혼란을 생각해 보면 정신적 아노미가 사회에 초래하는 정신적 혼란의 결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힘을 잃고 물신주의와 결탁한 자본주의가 생활의 여러 영역을 지배하고 세계적으로도 인류의 예지를 결정하던 정신 유산이 힘을 잃어 무규범(無規範) 아노미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아노미는 원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공통으로 존중하던 종교적 규범을 의미하는 노모스(율법)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노모스라는 희랍어에 부정어 아가 붙어서 아노모스 즉 규범 상실이 되었습니다. 아노미가 일으키는

여러 문제의 해결은 곧 노모스를 회복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도덕과 그 근원으로서 종교의 문제입니다.

정신을 살리는 교육

여기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신적 지능, 궁극적 지능'(Spiritual Intelligence, The Ultimate Intelligence)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나 조하르와 이안 마샬이라는 부부가 쓴 책입니다. 다나 조하르는 하버드와 MIT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대학에서 가르치는 유대계 여성입니다. 이안 마샬은 런던과 옥스퍼드에서 의학, 심리학,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20세기 초에 심리학자들이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 발견에 온 세계의 교육계는 열광적으로 집착하였습니다. IQ의 개발이 교육의 목적이고 높은 IQ가 그 지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중반에 다니엘 골만이 정서지수(Emotional Quotient)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EQ 곧 정서지수에 대한 이론이 보편화되었지요. 그런데 이제 제3의 지수가 2천년 들어서 등장했습니다. 그 제3의 지수는 심리학, 병리학, 인류학, 인지과학 등 많은 최신 관련 학문의 집단적 증거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의 지수가 곧 정신적 지수(Spiritual Quotient)입니다. IQ는 컴퓨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EQ는 짐승이 고등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Q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지능 중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Q, EQ, SQ 이 셋이 전체를 이루어 인격을 이루지만 그 중에서 SQ가 무엇보다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신지수는 무엇인가? SQ는 인간의 의미와 가치 추구, 비전이라는 정신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

니다. 의미나 가치, 그리고 비전의 추구는 21세기에 들어서 인류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話頭)이고 앞으로 교육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미와 가치와 비전을 늘 동경하고 있으며 이 능력이 발전될 때 우리의 정서나 지능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지수에 의하여 신념이나 행동이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나 조하르와 이안 마샬의 SQ 이론은 과학적 성과의 뒷받침이 되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는 올해 조선일보에서 다음 박경리(朴景利)씨의 대담 기사를 읽고 감동을 느낀 일이 있습니다.

“3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40평으로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식인의 꿈이니 답답합니다. 이런 것 말고 내 생애에 이런 일을 이뤄야겠다, 이런 꿈을 가져야 평생 활기와 흥분이 있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얼굴을 시커멓게 불태우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 깊은 물 속 뜨거운 불 속을 넘나들지요.”

예를 들어 농업은 경제적 수익을 가치 기준으로 하면 힘들고 수익도 없어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농업을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과 건강의 유지, 생활과 문화의 토양으로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위대한 생명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나 의미와 꿈을 발견한 이는 얼굴을 빛내며 긍지를 가지고 일생을 살 것입니다.

성서는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첨단과학시대에도 퇴색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가치와 의미와 비전의 단순 명료한 보고(寶庫)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훈적인 보고일 뿐 아니라 그 가치와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에서 고려할 선행(先行) 과제

오늘은 기독교 대안교육의 과제와 구체적 방향에 대해 말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선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한 선행 과제에 대해 개인적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안교육은 본질적이고 정상적인 교육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에게 예수가 한 일은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대안교육이란 특별한 교육, 대립적인 의미를 갖는 교육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본질적인 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이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에 대하여 각기 진리에 겸손하고 인간을 존중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바탕에서 접근하는 것을 인간형성의 기본적 가치로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란 인간을 단편적이 아닌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지식도 조각 지식의 배타적 주입이 문제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도록 돕고 경쟁보다 공동으로, 조각 지식보다 이해와 사고력을 중심으로, 평생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기에 보통 대안교육의 특징으로 알려진 작은 학교, 평화와 환경과 공동체에 관한 모든 이론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2. 성서와 종교 과목

기독교 학교에서는 윤리과목 대신 성서를 가르치지만 일반 학교서는 윤리과목 대신 종교과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3대종교가 공존하고 비교적 평화스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윤리교과서에서 보는 단편적 철학이나 종교 교과서의 교리 주입이 아니라 인생 자체와 현대 생활의 기본적인 물음, 세계 질서의 유래, 천지의 시작과 완성, 인생과 생사의 의미, 인류와 개인의 운명, 윤리적 규범의 근거, 아픔, 고통, 죄와 구원의 길, 인권, 평화와 고난의 의미, 생명과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항

목별로 여러 종교의 대답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1세기 학교 교육과 사회 문화를 정신적으로 깊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

아시는 대로 세계 고등종교는 셈족을 기원으로 하여 예언, 대화, 대결을 특징으로 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인도에서 유래하여 신비, 다양성, 명상의 양상을 띠는 힌두교, 불교 그리고 삶의 지혜와 조화를 가르치는 중국 전통에서 유래하는 유교, 도교로 구별됩니다. 종교는 남의 종교보다 자기 종교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개혁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과 이해 가운데 역사의 종국에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참하나님을 추구하여야(한스 쾨링)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세계의 세 고등종교가 적절한 비율로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3대 종교 간 평화적 공존의 실험 무대 같습니다. 초기 천주교 실학자들은 기독교로 유교의 도덕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유교도의 하나님이면서 불교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만 종교는 높은 곳으로 동화됩니다. 또 종교는 예언과 명상과 실천적 지혜의 성격이 있으므로 자기 신앙에 분명히 서면서 서로 영향을 받고 배우며 높은 진리로 승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4. 기독교 교과간의 관계

초기 교부시대 기독교의 축약된 교리로 신앙을 고백하던 사도신경 곧 하나님, 예수, 성령, 교회, 부활, 영원한 생명 등 본질적인 것과 서양 기독교가 전개되던 과정에 덧붙여진 건물, 제도, 의식 등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여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히 상대화하고 본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열린 태도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교과간 경계 없이 다양성 속의 상호 존중과 일치를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땅 위에 보내고 예수는 진실과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용서와 인격적 윤리적인 새로 태어남을 성령은 알리고 믿고 살고 감사하고 찬미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의 3위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함께 역사(役事)합니다. 하나님만 강조하면 구약같이 부성의 엄격함이 있습니다. 예수만 알면 개인 신앙에 국한되기 쉽습니다. 성령만 강조하면 신비해집니다. 삼위가 각기 다르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 종교와 기독교 교파 배경의 학생이 들어와 능동적으로 성서를 읽고 요약, 소감을 발표하여 스스로 인생과 종교 문제에 해답을 찾도록 입학 전 약속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재학 중 각자 성서 속의 예수를 배우고 졸업 후에는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교파나 신앙 태도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교리와 예수의 마음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정신적 아들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성서와 신앙만의 구원과 만인제사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성령으로 씌어졌고 성령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는 진리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성서는 딱딱한 교리가 됩니다. 서양 기독교는 신앙 논리의 일관성(교리) 옹호의 열심으로 기독교인끼리 또는 다른 종교를 차별, 박해하여 예수로 “너희가 내 평화를 알았더라면” 하고 격심하게 무시게 하였습니다. 종교재판, 농민전쟁, 종교전쟁, 비국교도 추방 등. 그러나 예수는 비종교인을 포함해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치는 분입니다.

사람은 신앙으로 구원되고 - 신앙은 내심의 문제지만 - 신앙은 회심을 통해 초래되는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는 믿음, 칼뱅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주장했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모두 종교개혁의 정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테가 『신곡』 천국 편에서 명상과 활동을 하나로 보았듯이 신앙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고 원인과 결과입니다. 자력인가 타력인가,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자유의지로도 보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성령이 마음속에 작용하므로 결국 은총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제사주의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알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공동체 정신이 실현됩니다.

지금은 신앙 없는 도덕이나 정치적 혁명사상으로 구원이나 신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가 환상임이 드러난 시대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개혁은 영과 진리에 의한 평신도 예배, 성서 속 예수의 마음, 그리고 기독교 정신의 생활화로 민족 특성을 갖는 기독교에 그 방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6. 기독교는 성서 과목에서만 가르치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모든 과목. 일상생활을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건물만이 아니고 예배와 교육과 생활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모든 교과에서 성서의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어에서는 진정한 대화를, 수학에서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 방식을, 영어에서는 문화의 다양함과 인간성의 하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생활은 차별이나 억압 구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는 개인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의 유기적 정신으로 운영될 때 성서 교육의 현상이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예수의 정신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사고방식에서도 예를 들면, 직업 선택, 공동체의 규칙, 이상적 인간상(欲大爲者 使爲人役 배재하당 교훈) 등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고, 전인교육은 인간을 몸과 정신과 영혼을 전체로 보고 전체적 관계와 발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생활은 민주적 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원칙을 존중하고 운영을 공개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책임을 분담하고 모든 성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최후 의사 결정으로 진리의 영에 귀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7. 학습방법이나 과정도 더불어 하는 내용이라야

지금 학교 체제가 억압적이고 학생의 인격이나 개성을 고려 않고 경쟁을 위주로 하는 것이면 학습의 방법이나 과정도 학생의 자기주도적이고 자료활용과 전체 파악력을 기르는 공부, 협동학습, 학우회, 대화, 과제 학습, 축제 등 더불어 하는 내용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 참여 등 더불어 하는 내용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교를 만들어가고 학교는 거꾸로 공생 사회 형성이나 시민단체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8. 교사의 자세

예수는 한 분만이 교사라 그를 본 받으라 하셨고 예수는 선생으로 불렸습니다. 교사는 예수와 같은 호칭을 갖는 영광스런 직업입니다. 한편 예수는 교사의 책임이 큰 만큼 크게 질책도 하셨습니다. 자기는 안하고 남을 시키는 것, 겉에 나타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 근본보다 지엽적인 데만 관심을 두는 태도 때문입니다. 교사는 예수같이 학생을 좋아하고 총체적 생활에서 학생과 같이 하고 진리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 현대의 과제와 기독교 교육

현대사회는 해결할 모순과 과제로 차 있고 기독교는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미래를 열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구시대에 맞는 세계 시민, 남북 분단의 극복, 사회 통합, 평화 실현,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 착취의

제거, 분배의 정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생명 운동 등. 학생들이 눈빛이 흐린 것은 미래의 도전에 동원령이 내린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서는 성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좋게 여기셨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를 유지하듯 인간은 창조되면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의무와 책임으로 지시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갈고 지키라’는 말뜻은 섬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인간이 성실, 사랑, 지식이 없을 때 고통이 곤충과 동물에 미친다 했고 로마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통을 겪는 동료로, 이사야서는 우주 완성의 날은 전쟁산업이 평화산업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친화하고 사람들은 만족과 휴식 속에 농업노동의 결과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죽게 하는 창조계의 질서 파괴 방치는 전쟁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잘못입니다.

10. 학교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모두 신념을 갖고 좋은 방안을 찾으며 실천하고 역경을 타넘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방향

지금 한국의 대안학교들은 들어가 보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약간 교육 특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 학생 주도적 학습,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공동체 지향 교육, 지역과의 유대 등 대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관점에서 풀무학교에서 실시해온 교육 방향을 대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성서 위의 작은 학교

풀무에서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성서 1장씩을 돌려 읽습니다. 3년이면 친구약을 한 번 통독합니다. 주 1시간 성서시간이 있

어 학생들이 사회를 보아 모듬을 짜서 요약, 소감 토론 등을 합니다. 성서는 읽기만 하지 않고 현실을 움직이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 바람직한 인간상, 직업선택의 기준, 노동, 가정 생활에 대한 태도, 운동 정신, 학문의 목적, 공동체의 규칙, 이런 것을 성서에서 발견하고 생활 속에 살려야 합니다.

학교는 작아야 학생과 교사의 대화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학생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개별화가 가능합니다. 교육 주체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서도 큰 일에 충실하기 위해 작은 것에서 시작하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2. 자유와 질서

학교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방임적인 자유는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만 강조되면 군대가 됩니다 약속을 최소화해서 모두 지키도록 약속하고 안 지키면 공동체에서 함께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자유와 질서를 함께 살리는 자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과 공부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곧 일을 사명과 책임과 의무로 명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교주도 수제자도 모두 노동자라는 자랑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작(勞作)은 자기실현, 사회 공헌에 의미가 있습니다. 풀무는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이원성을 극복한 학교입니다. 실업학교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으나 인문학교도 전인교육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노작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 꿈과 현실

오늘의 학생들은 20년 뒤면 사회의 주역이 됩니다. 학생들에

게 10년 20년 뒤의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그 뒤 나는 내 영을 모든 이에게 부으리라. 너희들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리라. 남종 여종들까지 나는 그 날에 내 영을 부으리라.”(요엘 3장 1-2절)

로마클럽은 인류가 자멸(自滅)을 막으려면 비전, 네트 워크, 진실한 말, 끊임없는 배움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교육에 반영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이상이 없는 국민은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야말로 인류의 문제 외에도 국내적으로 통일,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 환경과 생명 살리기, 민족 기독교 정신 높이기, 각 분야 문화 향상, 인권, 평화, 지역 살리기 등의 (義)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가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5. 개인과 공동체

한사람 한사람이 비근한 예로 먹은 음식의 그릇 씻기, 신발 정돈, 이불 개기, 빨래, 청소 등 자기 몸을 자기가 거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학우회나 기숙사 생활이 때로 지루하고 힘들어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모두 좋은 훈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전통문화와 세계화

로마서의 접목 비유를 보면 새것 위에 옛것이 접목되어 옛것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신앙으로 인도하는 몽학(蒙學) 선생이지만 신앙은 율법을 성취시키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완성하는 형태로 한국적

기독교라야 합니다. 전통적 인간상인 선비는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고 청빈하고 지조가 있었으며 실학자의 경우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밖에 한국의 김치 만들기, 한복 만들기, 농악 등을 익히고 한국의 전통사상이나 역사, 존경하는 인물을 아는 것은 모두 우리 전통문화의 바탕을 아는 것입니다. 새 접목으로 그 바탕을 변화시킬 때 새 한국인과 새 정신 문화가 나옵니다. 또한 한국인이 새로운 정신으로 세계를 알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어디서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교육

지금의 물질주의 사상은 공생의 질서, 생명과 환경을 파괴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은 주변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며칠 전 중국의 환경단체 대표들이 녹색연합 안내로 학교를 방문했는데 황사(黃砂)의 원인인 중국 삼림 황폐는 한국의 나무 젓가락과 호랑이 뼈 수입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환경문제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풀무에서는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부분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고 직원조합에서 우리 밀 빵과 재생 비누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8. 부모, 교사 학생의 역할

페스탈로찌 말대로 학교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고 교사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학교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전문 강의, 생활이나 진로지도, 행사 참여, 학교 평가, 운영 협의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면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9. 돌 대신 빵을, 전갈 대신 생선을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절 우수한 책, 음악, 비디오 영상매체를 접하게 해야 합니다. 풀무학교에서는 읽어야 할 책과 비디오를 추천하여 작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데 협력하고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0. 지역과 세계와 더불어

대안학교는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해 가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또 적극 외국어를 배우고 자매학교와 교류하고 해외 여행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보화로 국경을 넘어 교육 매체로 이용되는 때입니다. 세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교육도 교실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역이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교실을 운영해 주 5일제로 노동, 복지시설 봉사활동, 학습, 관람 등 교육도 실행 가능합니다. 또 절제되고 관리된 정보 교육도 세계 시민의 보편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20세기 초 피어올랐던 기독교 교육의 열정

돌이켜보면 지난 20세기는 교육과 함께 동이 텅습니다. 그때의 분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이는 조만식, 안창호, 이상재, 김구, 이승훈, 윤치호 이런 분들이지요.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독교와 교육을 함께 생각한 이들입니다. 한반도에 검은 구름이 덮이던 일제 강제 합병 때는 개신교의 수용시기이고 근대 교육이 본격화되던 민족 교육의 형성기였습니다. 1885년 박영효(朴泳孝)와 이수정(李樹庭)은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나 단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매킨지, 『한국의 비극』 1969, 연대출판사 54-55쪽)라고 하였습니다. 당대 지식인들은 국가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 교육과 기독교를 동시에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교육으로 ‘우리 백성’ 모두를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885-1909까지 기독교

교 사립학교 통계는 39개교였고 1910년 2월까지 장로교 605교 감리교 200교 성공회, 천도교, 안식교까지 합하면 학교 수가 950개교였습니다. 어쨌건 백년 전 우리 기독교와 교육은 민족과 함께 희망과 고난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교육의 성과는 3·1 운동 때 민족교육을 통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할 저력을 길러 주었습니다. 그 뒤 민족의 역사와 함께 기독교와 교육은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백년이 지난 이때 지금은 최선의 인물이 교육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계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때의 대인물은 아니나 기독교 평교사들이 지금 다시 교육에 눈떠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근대화와 독립운동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평화통일과 생명의 복원으로 세계화에 기여하는 교육을 과제로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체제를 넘어 어느 한쪽의 합병인 독일이나 베트남 방식이 아닌 한국식 통일은 차별을 넘어 침투해 들어가는 성서적 평화원리를 정치에 적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빌론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았듯이(겔 6:9) 우리에게도 진정한 해방인 통일을 맞을 수 있도록 누구나 덮어두고 싶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인류 보편성에 입각한 진리 위에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인내와 진실로 화해와 협력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생활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 평화 공동체를 수립하고 모든 대립관계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남북이 분단되고 외국에 강점(強占)된 가운데 신앙이 깊어져 '고난의 종' 메시아 사상이 나오고 깊은 세계관, 역사관이 배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시 볼 수 있는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광복의 실현은 구약의 결론과 같이 노모스, 곧 율법이 은혜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노모스의 회복을 인간교육에서 도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 교사들이 우리나라 민족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